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개 요

- * 주제
한국어 말하기평가의 실제
- * 학습 내용
 1. ACTFL OPI
 2. 한국어의 말하기숙달도 시험
 3. 한국어 말하기능력평가기준 시안
- * 학습 목표
 1. ACTFL OPI에 대해 알아 본다.
 2. 한국어의 말하기숙달도 시험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한다.
 3. 한국어 말하기능력평가기준 시안의 내용을 확인한다.

미 리 보 기

1. ACTFL OPI의 주요등급은 모두 10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등급은 학습자가 문법을 규칙에 맞게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수준을 기술한 것이다.
..... ()
2. OPI는 회화실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
3. OPI는 최단 10분에서 최장 30분 동안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능력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인터뷰는 가능한 한 정형화된 유형의 대화로 진행된다. ()
4. OPI는 회화테스트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정보를 요약하여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
5. 한국어의 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시험은 이미 구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 ()



정답

1. ×
이 등급은 외국어 학습자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간계를 계층적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의 수준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
면대면으로 말하기실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3. ×
인터뷰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된다.
4. ○
총 10등급으로 나누었다.
5. ×
개별 언어 교육기관에서는 말하기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TOPIK이나 KLPT에서는 아직 말하기능력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말하기평가의 기준에 대한 고민과, 말하기 채점자의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학습하기

1. ACTFL OPI(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OPI는 회화실력을 평가하는 도구이지만, 텍스트가 구어로 발화되는 것이 결국 회화이며, 4가지의 언어기능은 유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 평가체계

ACTFL OPI의 주요등급은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시 상, 중, 하의 세부등급으로 분류되어 모두 10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터뷰절차는 언어숙달지침에 따라 고안되었으며 이 등급은 외국어 학습자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간계를 계층적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의 수준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가범주

① 총체적(전반적) 과제 (global task)

■ <표 1> OPI에서 제시한 단계별 전반적 과제 ■

	전반적 과제
최상급	추상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토론 가능, 의견의 보충과 가설을 세움
상급	묘사가 가능 그리고 대다수 시간/ 관점의 틀에서 차례대로 나열
중급	단순한 질문으로 된 질문과 응답에서 단순한 대화를 유지
초급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열거되고 기록된 발음을 외워서 최소한의 대화 가능

우선 단계별로 주어지는 과제들을 살펴보면, 고급과 최상급에서는 묘사가 가능하며 토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거나 이를 보충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토론하기는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쓰기 교육과 그 연관성을 찾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논증하며 반박하는 글쓰기를 하는 과제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맥락(context)

■ <표 2> OPI에서 제시한 단계별 전후문맥과 목차 (번역문) ■

	전후문맥과 목차
최상급	문맥 : 대부분 형식적이고 정보가 있는 설정 목차 :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배열과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주제의 관심과 흥미로운 그리고 전문적 지식
상급	문맥 : 대부분 정보가 있고 약간 형식적 설정 목차 : 구체적이고 개인적 일반적 관심의 사실적 주제



중급	문맥 : 약간의 정보가 있는 설정과 상호 활동적 설정의 제한된 수 목차 : 스스로 연관되어지는 대부분의 주제와 즉흥적 환경
초급	문맥 : 매우 예상가는 한 평범한 일일 설정 목차 : 평범한 일일 삶의 분리된 양상

다음으로는 전후 문맥과 목차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고급과 최상급에서는 초급이나 중급에 비해 문맥에 정보가 들어 있으며,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목차에서는 구체적이며 일반적인 주제와, 흥미로우며 전문적인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목차에 이어 제시될 수 있는 텍스트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술적 쓰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정확성(accuracy)

■ 〈표 3〉 OPI에서 제시한 단계별 정확한 필요사항 요약하기 (번역문) ■

	정확한 필요사항 요약하기
최상급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해서 대화 중 또는 원어민들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일이 없음
상급	비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대화자들과 익숙하지 않은 대화를 할 때 어려움 없이 이해 가능
중급	비 원어민 대화자들과 익숙한 대화에 의해 이해와 반복의 가능
초급	이해를 하기 어려울 때 대화자들을 비원어민들과 익숙한 대화사용

이어서 볼 것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필요사항 요약하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하는 것인데, '요약하기'는 고급의 교재에서 장문의 텍스트가 많이 제시되고 이와 관련한 읽기 후 활동으로 쓰기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언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OPI는 회화테스트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정보를 요약하여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는데, 쓰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글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재에서는 읽기 후 활동으로 제시되는 쓰기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어 텍스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생각을 요약하여 적고 글의 개요를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텍스트유형(text type)

■ 〈표 4〉 OPI에서 제시한 단계별 텍스트유형 (번역문) ■

	텍스트유형
최상급	확장된 강연
상급	문단
중급	분리된 문장
초급	개개의 단어들과 문장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데, OPI에서의 텍스트는 문자로 작성되지 않은 구어로 발화되는 내용을 뜻한다. 텍스트의 개념을 넓게 보면 문자로 된 것과 구어로 발화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표 내용도 마찬가지로 쓰기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급에서는 개개의 단어들과 문장들을 작성하게 되고, 최상급에 이르러서는 여러 개의 문단을 나열하여 확장된 강연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확장된 강연의 개념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¹⁾

(3) 평가절차

OPT는 최단 10분에서 최장 30분 동안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능력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된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시험관은 준비단계, 수준점검단계, 탐색단계, 마무리단계로 인터뷰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험자를 평가한다. 점수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차로 매겨지지만,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나 음성파일의 청취를 통해 확정된다.

2. 한국어의 말하기숙달도 시험들

- (1) 김정숙 외(2006) "한국어 말하기능력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및 평가모형개발"
1급부터 6급에 이르는 말하기등급기술을 제시한다.

등급	말하기등급기술
1급	•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말하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매우 친숙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문법과 발음이 많이 부정확할 수 있다.

- 1) 아래의 표는 앞에서 참고하였던 ACTFL과 ILR의 숙달도를 구분한 것으로, 한국어의 등급기준을 적용하여 번역하였다.

■ 〈표〉 ACTFL와 ILR에서의 숙달도구분 ■

ACTFL Scale	ILR Scale
최상급자	원어와 이중언어의 숙달
	4+
	숙련의 구별
	3+
고급자 (고)	전문적 업무숙련
고급자	2+
중급자 (고)	제한된 업무숙련
중급자 (중)	1+
중급자 (초)	서바이벌숙련
초급자 (고)	
초급자 (중)	0+
초급자 (초)	0
	비실용적 숙련



2급	- 일상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한 주제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우체국, 은행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주 사용되는 조사와 연결어미를 사용해 이야기할 수 있으나 문법과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3급	-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나 기능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기능을 부분적이나마 수행할 수 있다. - 성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 격식적 맥락과 비격식적 맥락을 구분해 말할 수 있다. - 개별음소의 발음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4급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일반적 업무·학업맥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말하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발화상황과 대화상대자에 따라 구분되는 발화의 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급	- 격식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 업무·학업 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 억양 등 발음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나타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6급	- 격식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분야의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 업무·학업맥락에서 요구되는 말하기기능을 대체로 수행할 수 있다. -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 사용하며, 가장 적절한 언어 형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 전나영 외(2007)

한국어교육기관 내부용으로 연구·개발된 시험.

평가범주				범주측정 기제(①~⑤)
언어적 능력	음운	발음	정확성	① 최상점 (정확함, 자연스러움 등)
		억양	자연스러움	
		띄어 말하기	자연스러움	
	문법		정확성	② 상점 (정확한 편, 자연스러운 편 등)
			다양성	
	어휘		정확성	③ 중간점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줌 등)
			다양성	
	담화		결속성(형식)	④ 하점 (부자연스러워 의사소통에 방해가 됨 등)
			응집성(내용)	
화용적 능력	기능		유창성	⑤ 최하점 (부자연스러워 의사소통이 어려움 등)
			적절성	
	사회·문화적 능력	공손법 사용역	적절성	

3. 한국어 말하기능력평가기준 시안

(1) 평가개요

손연자(연세대 어학당), 김정숙(고려대 민·연 어문화 연수부)·원진숙(이화여대언어교육원)이 공동연구한 것으로, 단계는 최저급(0)~최고급(4)의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평가 기준시안구성절차

한국내의 대표적 한국어교육기관이 연세대 어학당,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부설의 어문화 연수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배치고사를 분석하고, 위의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교수내용을 어휘와 구조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3) 평가 기준시안

등급	평가 기준시안
최저급(0)	- 거의 아무 말도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우리말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같은 인사말 정도가 가능하다. - 외국에 널리 알려진 "서울, 불고기, 김치, 태권도"같은 낱말을 고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급하(1)	- 한국어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없다. - 문장구성능력은 없으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단한 표현(이게 뭐예요? 얼마예요? 나는 **입니다, **주세요, **는 어디 있어요?)을 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 - 실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신체, 행동, 물건, 감정, 계절, 날씨, 수, 가족, 색채, 방향 등을 나타내는 어휘 중 기초적인 것)를 알고 말한다. - 개별음운을 구별해서 듣거나 발음할 수 없다.
저급상(1+)	- 일상적인 단순한 대화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단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어의 기초문법을 이해하고 말한다. - 어순(sov), 부사의 위치(서술어 앞에) - 종결어미(-아요, 습니다) - 격조사(주격, 목적격, 속격, 처격, 여격)와 보조사 약간 (-에, -에서, -부터, -까지, -로, -만, -도, -보다) - 시제(단순시제 '현재, 과거, 미래'와 진행상 '-고 있다' - 부정표현(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 기본적인 접속부사(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 불규칙 활용('ㄷ, ㄹ, ㅂ, ㅅ, ㅎ, -, 르'불규칙) - 경어법(-시-) '-아요'와 '- 습니다'체를 이용하여 간단한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말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길묻기, 물건 사기, 식사 주문하기, 약속하기, 차 타기, 부탁하기, 질문하기, 자기소개하기, 기본적인 감정 표현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저급 하에 있던 어휘항목들을 확대시켜 사용한다. • 음운변화 규칙을 알고 발음하나 정확성은 부족하다.
중급하(2)	•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친숙한 주제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으나 주도하지 못한다. 어휘와 담화구성능력이 부족해서 대화가 자주 중단되거나 주제가 바뀐다. • 다음과 같은 문법사항을 이용하여 말할 수 있다. ① 종결어미(-는데요, -거든요, -겠어요?, -잖아요 등) ② 연결어미(-고, -지만, -아서, -러, -려고 등) ③ 보조사(-처럼, -마다, -나(선택, 많음), -밖에, -만큼) ④ 시제('-(다)'가 들어 있는 회상 시제, -아 있다, -아 가다/오다 등) ⑤ 간접화법(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⑥ 사동문(-게하다, 사동 어휘)/피동문(-아지다, -게 되다, 피동 어휘) ⑦ 관형형 어미(현재, 과거, 미래)/부사형 어미(-아, -게)/명사형 어미(-음, -기) ⑧ 경어법 : 어휘(택, 연세, 드시다, 돌아가시다, 생신, 성함 등) / 조사(-께서, -께서, -께)/낯춤말(저, 저희, 드리다 등) • 저급 상에서 말한 기능들을 더 발전시켜 말하고, 지시, 전화하기, 안내하기, 제안하기, 남의 얘기 전달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어휘 : 추상 어휘(경험, 희망, 문화, 습관, 상상하다, 운이 좋다, 성격, 마음에 들다, 답답하다 등)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모국어의 발음과 억양이 그대로 나타난다.
중급상(2+)	•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말하고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친숙하지 못한 주제(시사, 정치, 경제, 문화 등)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긴장하여 말을 더듬거나 간투사, 군말 등이 자주 개입되어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대화가 가능하나 충분하지는 않다. • 응집장치(접속사, 인칭대명사, 문장부사, 동일어휘의 반복, 생략, 대응, 대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담화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연결어미가 '-자마자, -다가, -는 길에, -는 바람에, -느라고' 등으로 확대되며,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연결어미를 사용해 말할 수 있다. • 보조사가 '-조차, -나마, -치고, -까짓' 등으로 확대된다. • 경어법 : 존대말과 반말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 • 격식체, 비격식체 : 아직 서툴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격식체, 비격식체를 구분해 말할 수 있다. • 다양한 언어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기술하기, 설득하기, 충고하기, 주장하기 등) • '눈이 높다, 바람맞다, 손이 크다, 바가지 쓰다, 바가지 굵다,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같은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 속담을 알고, 추상어가 확대된다. (건망증, 기억력, 자랑스럽다, 남자답다) 그러나 아직 그 문맥에서 꼭 필요한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미숙하다. • 개별음운은 거의 정확히 발음하지만 억양에는 모국어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고급하(3)	• 미리 준비한 상태라면 특정주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직장, 시장, 병원 등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발화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이지 않은 주제라면 분량이 많아도 그 내용을 듣고 요약해 발표할 수 있다.

	• 충고하기, 설득하기, 동조하기, 이의제기하기, 개인적인 상담, 농담 주고 받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보조사가 '-치고(는), -까짓, -따위'등으로 확대된다. • '세배, 성묘, 제사, 점, 궁합, 함, 삼일장'등의 문화적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상황에 맞는 어휘, 문법, 요소, 구조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발화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의사소통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 개별음운을 거의 정확히 발음하지만 억양 등에는 아직 모국어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고급상(3+)	• 예기치 못한 상황일지라도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고 격식에 맞게 할 수 있다. • 교육받은 원어민 화자와 별 어려움 없이 협상,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비전문적 내용의 통역도 할 수 있다. • 다양한 범주의 어휘들(구체어, 추상어, 전문어, 문화적 지시어, 축약어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동의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알 수 있다.(중매쟁이/뚜쟁이, 아내/집사람/마누라 등) 그리고 완곡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말 속에 내포된 숨은 뜻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 수준 높은 은유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고 유창하게 담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투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가끔 일으키는 발화 실수나 강세, 억양에서의 오류 때문에 원어민 화자의 발화로 느껴 지지는 않는다.
최고급(4)	• 교육받은 원어민 화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표준상태가 되어야 한다. • 문법성은 이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한국어에 대한 직관까지도 있는 상태이다. •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전문적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통역을 할 수도 있다. • 발음도 거의 모국어 화자에 준하는 수준이다.



평가하기

1. ACTFL OPI의 평가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① 총체적(전반적) 과제 ② 정확성
- ③ 유창성 ④ 텍스트유형

2. ACTFL OPI에서 제시한 단계별 총체적(전반적) 과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상급 - 추상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토론 가능
- ② 상급 - 관점의 틀에서 차례대로 나열
- ③ 중급 - 단순한 질문으로 된 질문과 응답에서 단순한 대화를 유지
- ④ 초급 - 길이가 긴 묘사 가능

3. ACTFL OPI의 평가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최단 10분에서 최장 30분 동안 말하기능력을 평가받는다.
- ②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시험관은 여러 인터뷰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험자를 평가한다.
- ③ 인터뷰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된다.
- ④ 점수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매겨지고 확정이 된다.

4. ACTFL OPI의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주요등급은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것이 다시 상, 중, 하의 세부등급으로 분류되어 모두 10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인터뷰절차는 언어숙달지침에 따라 고안되었다.
- ③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교육현장에서 배운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④ 10등급은 외국어 학습자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간계를 계층적으로 나눈 것이다.

5. 김정숙(2006)에서 제시한 말하기등급기술 중 초급단계에서 구사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 ① 우체국, 은행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격식적 맥락과 비격식적 맥락을 구분해 말할 수 있다.
- ③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1. ③

③은 포함되지 않으며, ACTFL OPI의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다.

2. ④

초급의 전반적 과제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열거되고 기록된 발음을 외워서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한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

3. ④

점수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차로 매겨지지만,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나 음성파일의 청취를 통해 확정된다.

4. ③

실제 언어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의 수준을 기술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①

이 외에도 일상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친숙한 주제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 하거나 짧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ACTFL OPI

총 10등급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면대면으로 훈련된 시험관이 시험자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하는 말하기능력평가방법이다.

2. 한국어의 말하기숙달도 시험

아직 공식적인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말하기능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어를 교육하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3. 한국어 말하기능력평가기준 시안

한국어 말하기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 문법의 사용, 사회적 맥락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